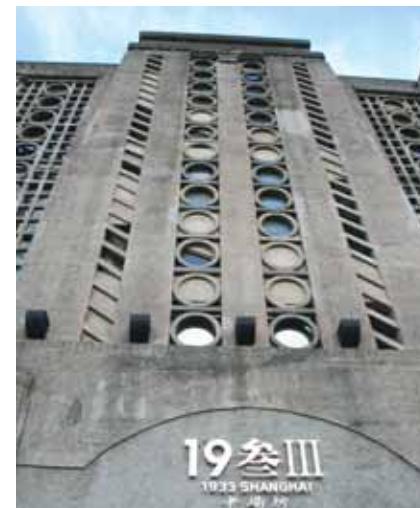




1933 라오창팡 1층에 자리하고 있는 마이크로 시어터.



1933 라오창팡 전경



미로처럼 이어져 있는 라오창팡 내부모습.

## 흉물 도축장 예술단지 단장... 쇠락의 도심에 문화 숨결

中 上하이 문화 도심재생

(下) 1933 라오창팡

상하이 = 글·사진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1년 전 상하이를 둘러봤다고 상하이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 상하이를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공감하는 얘기다. 그만큼 상하이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변화한다. 어제의 상하이와 오늘의 상하이는 크게 다르다. '내일'의 상하이 역시 그럴 것이다.

여기에는 오래된 건물과 근대 유적지를 창의단지로 재활용한 도심재생의 성공을 빼놓을 수 없다. 그중에서도 '1933 라오창팡'(老厂房)은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대표적인 창의단지다.

상하이 황푸강 지류 옆 흥커우(虹口)구에 위치한 1933 라오창팡은 1933년 영국건축가 발포스(Balfours)가 설계한 도축장 건물이다. 하루 평균 300여 마리가 도축된 이곳의 건축면적은 약 3만2500m<sup>2</sup>에 이른다. 이는 당시만 해도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도축장이었다. 유명 건축인에게 도축장 설계를 맡긴 이유는 상하이에 거주했던 서양인들에게 위생적인 소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설

2006년 역사건축물 지정 80년 건물 리모델링

90개 단지 극장·패션센터 등 8천개 업체 입주

역사 현장 보존·복합문화공간 '두 토끼' 잡아

전일빌딩·전남방직 활용방안 벤치마킹 필요



1933 라오창팡은 도축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한 상하이시의 대표적인 창의단지 가운데 하나다. 지난 2006년부터 디자인 관련 업체들이 들어선 이곳에는 현재 웨딩홀, 갤러리 등이 성업중이다.

제 당시 고대로마의 바실리카 양식과 '하늘은 땅을 사각형'이라는 중국 풍수학을 반영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직사각형의 건물이지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속이 비어있는 독특한 양식이다. 이는 도축장 시설에 필수적인 냉방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비교적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1930년대 이런 구조와 규모의 도살장은 전세계에서 단 3곳 뿐이었다고 한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우선 하늘이 보이고 4개의 베란다와 26개 다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동통로와 건물사이의 경사로, 다리, 교차로가 정신없이 '얽혀져' 마치 미로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나팔 모양의 기둥, 도축되는 소가 끌려갔던 우도(牛道), 고개를 신선하게 유지하려고 만든 바람길 따위가 그대로 남아 있다. 특히 소들이 도살장으로 들어가던 다리는 모두 넓이가 다르다. 그 이유는 크기가 다른 소들이 각각 크기에 맞는 다리를 건너게 함으로써 크기를 분류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소들은 가파른 나선계단을 따라 올라가 최종 목적지인 중심판에서 도축된다. 현재 1933 라오창팡에는 이런 건축 특색이 남아있어 관광객들이 그 길을 걸으면 80년 전의 분위기

를 어렵잖이 느낄 수 있다.

1933 라오창팡은 1950년대 말까지 도축장으로 사용됐다. 이후 1970년대 도축관련 시설이 교외로 이전하면서 흉물로 방치됐다. 잠시 문을 닫은 뒤 제약공장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2002년에는 그마저 떠나버렸다.

하지만 2006년 죽어있던 라오창팡에 헛빛이 들기 시작했다. 근대 역사건축물로 지정되면서 상하이 디자인 관련 업체들이 '눈독'을 들었다. 2006년부터 이를 기업들은 1억2000만원(210억원)을 들어 새 단장을 한 뒤 디자인을 비롯한 예술 관련 업체들을 입주시켰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1930년대 독특한 건축양식과 미로와 같은 내부는 색다른 분위기를 찾는 업체들에게는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현재 이곳에는 웨딩홀, 드라마 제작소, 패션센터, 갤러리, 디자인 센터, 2개의 극장(마이크로 시어터와 공연극장) 등 40여 개의 업체와 음식점 등이 있다. 공연극장은 예전에 도축장 대형 환풍구 일부분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현재는 그 환풍구 아래 통유리 바닥을 건설해 빵ennifer 공간에 떠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사실 1933 라오창팡이 성공하기 까지는에는 적잖은 우여곡절이 있

었다. 도축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할 당시, 상하이 시 정부와 구정부 그리고 문화산업 관계자들은 펑펑하게 맞섰다. 옛 건물을 모두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의견과 건물 외관 및 도축 통로를 그대로 살리면서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린 것이다. 결론 끝에 도축장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면서 리모델링하자는 의견 쪽으로 모아졌다. 결국 역사의 현장 보존과 현대적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게 된 것이다.

1933 라오창팡의 성공은 전일빌딩이나 전남방직 등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하는 과정을 암고 있는 광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통도 살리고, 활용도도 높이는 일차적인 재활용단계에서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는 구조로까지 넓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지정을 통해 1933 라오창팡과 M50 예술촌(본보 11월18일자 13면)을 상하이의 랜드마크로 성공시킨 상하이 정부의 전략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상하이 시는 근대 유적물과 낡은 건축물들을 재활용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90여 개의 문화창의단지(총면적 315만m<sup>2</sup>)를 지정, 국내외 관련 업체들을 적극 유

치하고 있다. 이는 도심의 공장을 시 외곽으로 이전시킨 이후 버려진 빈 건물과 공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상하이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약 6년동안 도심의 20%에 불과한 역사, 문화, 녹지 지구를 80%로 확장하는 관련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수백 개의 빈 공장과 건물을 고스란히 도심에 남았다.

이를 위해 입주희망업체들에게는 저금리와 낮은 임대료를 지원하고 외국기업들에게는 투자조건을 완화시켰다. 그 결과 현재 90여 개의 문화창의단지에는 80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 이 가운데 약 30%가 외국기업이다. 또한 이들 90개의 창의단지 가운데 3분의 2인 60개가 옛 공장과 밭전소, 폐교 등을 재활용한 곳이다.

상하이 디자인 전용센터 관계자는 "상하이시는 2010년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지정을 계기로 기업유치는 물론 디자인 인력양성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디자인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는 광주와 디자인 포럼, 디자인워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싶다"고 말했다.

&lt;끝&gt;

/jhpark@kwangju.co.kr

(취재협조=상하이시 인민대외우호협회·광주문화재단)

**겨울 기차여행**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http://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능성동 대안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KORAL  
한국관광공사  
광주본부  
강원권역본부

**남이섬**  
크리스마스에 떠나는  
**남이섬 기차여행** (12월24일)  
**시간 일정**

00:05	광주역출발/기평역 도착
07:00	<b>남이섬/김유정문학관</b>
11:40	춘천소양댐 관광
13:10	춘천역거리 자유증식
21:53	춘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79,000원  
소아 59,000원

**동해초암 촛대바위 일출**  
**기차여행** (12월31일)  
**시간 일정**

22:00	광주역출발/동해역 도착
06:40	<b>초암 촛대바위 새해 일출</b>
09:00	천곡동굴 관광/죽서루 관광
12:10	목호어시장 자유증식
22:30	동해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99,000원  
소아 70,000원

**태백산 눈꽃 열차**  
(1월 매주 금요일)  
**시간 일정**

21:45	광주역 출발/태백역 도착
06:00	<b>태백산 등반 및 관광</b>
12:00	하이원스키장 곤도라 탑승
22:05	고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85,000원

**정동진 일출 열차**  
(1월 매주 금요일)  
**시간 일정**

21:45	광주역 출발/태백역 도착
06:30	<b>정동진 일출 및 관광</b>
12:00	하이원스키장 곤도라 탑승
22:05	고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85,000원

**하이원스키장 시즌버스**  
**매일 왕복**

시간	일정
03:00	엄주체육관 주차장
03:05	신세계 백화점 육교 밑
03:10	문화예술관 육교 밑
08:00	<b>하이원 스キー장 도착</b>
16:30	<b>하이원 스キー장 출발</b>
21:30	광주도착

**1일 왕복요금** 50,000원  
리프트카/장비렌탈(주중60%, 주말 50%) 할인적용